



2026. 9. 23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카카오뱅크, 1년 정기예금 금리 3.7%로 인상...은행권 최고 수준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YOeHvY>

카카오뱅크는 오는 23일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금리를 0.1%p 올리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권 최고 수준인 연 3.7%로, 자유적금 금리는 3.75%로 인상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중반까지 올라서며 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

대출 풀리지 한달 만에 5대 은행 '한도초과'...연말 대출 적벽 어쩌나

국민일보

<https://zrr.kr/o85003>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확대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대 은행이 추가로 확보한 대출 여력을 사실상 모두 소진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수정된 연간 목표마저 넘어선 만큼 연말로 갈수록 은행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정책금융에 지방은행까지 가세...피지컬 AI '지역 돈줄' 만든다

아이뉴스24

<https://zrr.kr/xULTIK>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은행이 손잡고 지역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 자금 공급에 나서
전북·경북·경남의 주력 제조업에 AI·로봇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 도입과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을 함께 지원할 계획

계속 쌓이는 은행권 NPL 매물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42ePBa>

올해 3분기 은행권 부실채권(NPL)시장 공개매각 물량 가운데 7564억원어치가 철회된 데 이어 4분기에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만 7500억원을 웃도는 물량이 대기
매각가율 60%선을 지키려는 은행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NPL 전입사 사이에서 매각만 뒤로 밀리는 모습

'3개월 CP' 줄이는 한양증권...첫 회사채 1500억으로 조달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g9nTaY>

한양증권이 첫 공모 회사채 발행을 계기로 단기물 중심의 조달구조를 장기화
그동안 3개월물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에 의존해왔지만 유동성공급자(LP)와 투자은행(IB) 등 자금 소요가 큰 사업을 확대하면서 1년 이상 장기 조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

증권사 플랫폼 경쟁...거래보다 '채류'가 승부처

뉴스투데이

<https://zrr.kr/1cbscn>

국내 증권사들이 적립식 투자와 연금, 미국주식 자동주문, 토론헤프(STO), 비상장주식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며 고객 점점 확대
투자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생애주기와 거래 습관에 맞춘 플랫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

보험 설계사가 불법 대출 중개까지...제재 비웃는 '슈퍼갑' GA에 칼 댔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mPePzK>

금융당국이 보험사보다 더 커져버린 보험대리점(GA)에 '개혁 수준'의 첫 종합감독 방안 마련에 착수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제재를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고, 마구잡이식 경영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

8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84.7%...지난해보다 0.3%p ↑

데일리안

<https://zrr.kr/BtJCKL>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4.7%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p) 소폭 상승
앞서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올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개선 효과가 제한된 점 등이 영향, 다만 8월에는 인적·물적 사고가 모두 줄면서 월간 손해율이 전년 동기비 개선

국내 코인 거래대금 17배 급증...예치금도 5조원 돌파

한국경제

<https://zrr.kr/Cgl4JJ>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은 32억7424만달러(약 4조4500억원)로, 이달 1일 22억6230만달러(약 3조8000억원)보다 44.7% 증가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따라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거래대금과 예치금이 동시에 늘면서 코인 시장에서 이탈했던 투자자들의 복귀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

서클, 바이낸스서 1억달러 투자 유치...USDC 글로벌 확장 탄력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TbsKX7>

바이낸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5년간 자사 플랫폼에서 USDC 확산을 지원
이번 계약은 서클이 미국 중심인 USDC 기반을 해외로 넓히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테더 USDT와 경쟁하려는 행보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